



오늘의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_에스겔 47:9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신년 특집 | 4 | 교회 소식 | 11 | 목회칼럼 |
| 3 | 교회의 백신 | 6 | 광야의교회 이전 | 12 | 목회서신 |



새로 출발합니다

광야의교회가 터전을 옮겼습니다. 하나님나라는 간 데 없고 교회만 남아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출발점에 다시 섰습니다.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손길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 관련기사 6면

공감으로 함께하는 자녀 교육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버지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이번 호는 창립기념호로 교회에 대한 책 속의 명문장을 소개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상처 입은 치유자

아이들과 오랜만에 맑은 계곡이 있는 교외로 나갔다.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에 발을 담갔다. 무릎정도까지만 담겼는데도 뻗속까지 시린 차가움에 몸을 담그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다. 물 온도에 상관없이 물놀이하면 그냥 신나서 첨벙거린다.

자연관찰자인 큰 아이는 물놀이보다는 다슬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 채집에 더 집중이다. 동생이 쓰는 물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을 들여다보며 돌을 들춘다. 잡은 다슬기가 꽤나 많다. 해마다 계곡에 가서 다슬기도 잡고 송사리도 잡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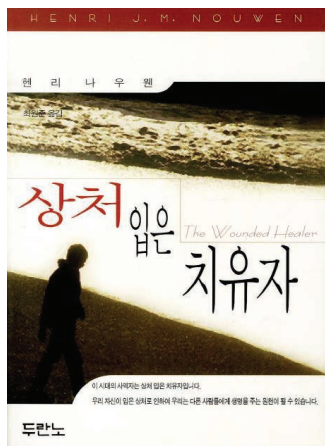
큰 아이가 통발을 발견했다. 상태를 보니 오래전에 설치해놓았던 통발인 거 같았다. 통발을 들어올렸는데 수염이 길쭉한 메기같은 물고기가 있었다. 길이가 15cm쯤 되었다. 큰 물고기를 잡았다며 신나했고 집에서 키우자며 결국에는 집까지 데리고 왔다. 어떻게 키워야하나 걱정하며 마트에 가서 어항을 사서 우선 옮겨주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어린 시절을 사골에서 보내며 같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다면 어느 분께서 그 물고기 이름이 ‘통가리’라고 알려주셔서 쓰이면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다. 큰 아이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근데, 쓰이면 많이 아프대”했더니 “응, 나 쓰여봤는데 진짜 아팠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언제? 잡을 때 쓰였었어?”했더니 “응, 잡을 때 손가락을 쓰여서 밴드 붙였는데 그래도 아파서 한동안 잡고 있었어”라고 했다.

작은 상처에도 밴드를 붙이는 아이들이라 보고도 그냥 지나쳤었는데, 통증을 느끼고 자기 혼자 나름 응급처리를 한 것이다. 통증을 꽤 느꼈을텐데 밴드를 붙이고 그냥 혼자 잡고 있었다고 하니 밴드 붙인 걸 보고도 왜 붙였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말을 했으면 약이라도 발라줬을텐데 그걸 혼자 참고 있었다는 것에 속상하기도 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서 웬만한 상처에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응급처리를 한다. 작은 상처는 그런 방식으로 잘 아물 때도 있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응급처리를 하면 잘 낫지도 않을뿐더러 낫더라도 흉터가 남기도 한다. “상처 입은 치유자(헨리 나우웬, 두란노)”라는 책이 생각났다.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그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치유해줄 수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제1호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의 모든 상처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주실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상처가 있는지 생각해보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큰 상처이지만 통증은 거의 없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처가 꽤 큰 통증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다. 나름의 방식으로 상처를 대충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같은 상처를 이미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내 상처를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헨리 나우웬, 두란노 2011

책 속의 명문장

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



강성한 김미란, 세움북스 2021

- 부모의 책임은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삶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 오늘날 주일학교 교회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적 책임을 무시하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으로 옮겨간 것은 슬픈 일입니다.
- 세상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악의 유혹을 받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모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인 당신이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 자녀 양육은 부모 마음의 우상을 살피고 제거하며,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정하라고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성장과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 자녀 양육의 모든 상황은 부모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자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할 기회입니다. 부모는 감사함으로 이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우리는 자녀에게 매일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율법(법, 규칙, 명령)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 자녀의 삶에서 무언가 선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그 은혜의 증거를 찾아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해주고,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자녀와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 성경이 말하는 훈계의 방법은 사랑으로 마음을 다루는 매와 대화입니다. 큰 원리는 사랑이 담긴 매와 마음을 다루는 대화를 균형 있게 사용해서 자녀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 마음에 얽힌 미련함을 제거하고 바르게 해서 자유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녀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른 징계가 아닙니다.
-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부모의 임무는 말씀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 자녀 양육의 한순간도 부모가 혼자 분투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생 최고의 동행자 성령님을 부모의 동반자로 보내셨습니다.
- 진리의 말씀이 자녀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자녀 스스로 말씀을 펼쳐 읽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쓰게 하고, 또 외우게 해야 합니다.
- 자녀 양육의 중요한 비전은 자녀를 세상을 섬기는 청지기로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자녀가 일에 능숙한 성인 남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부모는 자녀를 어릴 때부터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살아가려면 부모는 자녀를 어릴 때부터 물질과 시간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교단 소식
한국기독교공보 특집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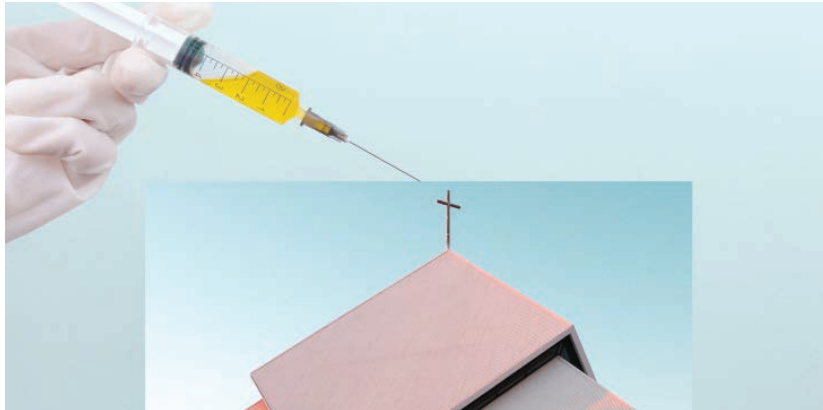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가 알려준, 한국교회에 필요한 백신 '공공성'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2021. 7. 21)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위기의 한국교회가 생각해야 할
'공공성'에 대한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함께 참고할 만한 진단이라고 보아 전문을 인용합니다.

함몰함몰



연중기획 'V'가 이번호에서 다룰 단어는 'vaccine (백신)'이다. 현 인류에게 'vaccine'은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긋지긋하게 인류를 괴롭힐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숙주의 감염을 통해 확산하며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죄(vice)'와 그 속성이 비슷하다. 수 년 전부터 대사회 이미지 하락은 물론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종종 여러 종류의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영적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태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보다도 더 길고 지루하게 대사회 이미지 하락과 교세 감소라는 엔데믹(endemic)을 겪고 있다.

백신을 접종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미래에 침범하게 될 병원체에 대해 우리 몸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면역을 위해서는 과거 혹은 현재에 한국교회가 겪었던 사건들을 살펴 다시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체질로 변모하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는 교회를 유익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나?

코로나19는 그 자체로는 바이러스이지만 이를 통한 경험은 한국교회에게 백신이 될 수 있다. 올해 1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지난해 1월에 조사된 32%에서 21%로, 1년 사이에 11%나 급락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백신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다. '공공성(公共性)'이란 '명사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 두루 관계하여 유익하게 작용하는 성향이나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공공성의 부족,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 유익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1월의 한국교회 신뢰도 급감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집단감염의 온상이 되었다는 일반국민들의 인식 때문이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실제 교회발 감염자 비율이 11%인데 국민들은 44%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격차는 왜 발생했을까?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를 언론의 편향적

보도 때문이라고 해서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하지만 이 조사를 이끌었던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지용근 소장은 "그것보다는 교회 자체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보는게 더 타당할 것"이라며, "우선은 코로나19 1차 유행의 주인공이 '신천지'였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신천지가 교회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신천지에 대해 한국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지 소장은 또한 교회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한다. 게다가 2차 유행의 중심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었고, 3차 유행에서는 인터콥 경북 상주 BJT열방센터에 이어 IM선교회까지 대량 확진자가 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발생했다. 전광훈 목사의 기행적이고 극단적인 정치행보에 대해 한국교회는 자정능력을 보이지 못했고, 건강한 선교를 하지 못하는 단체들이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자정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더 기본적인 이유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 소장의 분석이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더 주목하고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교회발 확진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지 소장의 설명이다.

현재도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등은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부정적 언론보도나 오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성과 자제 보다는 억울하다는 식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지만 당시 설문에서 '종교의 자유, 공익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86%나 되는 국민이 동의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 시대 사회가 교회 요청하는 것, '공공성'

'공공성'을 갖추는 것이 한국교회가 맞아야 할 백신이라는 점은 이어진 질문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답변을 한 개신교인은 39%, 비개신교인은 49%였다. 응답 중 가장 높은 퍼센트다. 그 뒤를 이어 '사회적 책임(구제와 봉사)'이라고 답한 비율이 개신교인 17%, 비개신교인 30%였다.

또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신교인의 80%, 비개신교인의 83%가 '그렇다'고 응답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대부분이 한국 교회의 공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밖 삶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도 개신교인의 95%, 비개신교인의 80%가 동의했다.

공교회성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사도신경의 공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54%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주관식으로 묻자 10% 정도만이 공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교회에서 '공교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교회로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백신이 '공공성을 갖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연합기관과 교단의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개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106회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해진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

표현모 기자

교회 소식
창립 33주년 행사 화보

창립 33주년, 조출한 기념식



창립주일인 지난 6월 27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교회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조출한 케이크 커팅식과 연주회가 1층 로비에서 펼쳐졌다. 이날 커팅식에는 김화수 담임목사와 창립교인 여러분, 서기장로가 참석했다.

장로 은퇴식



6월 27일 3부 예배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성구 장로의 은퇴식이 거행되었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김성구 장로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

명예권사 임명



6월 27일 3부 예배에서 명예권사 임명식이 거행되었다. 명예권사는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지 20년 이상 되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번에 명예권사로 임명된 분들은 김경순, 김난숙, 김성희, 김순자, 박송자, 우진애, 원정희, 유희라, 윤건숙, 이상남, 이선옥, 이숙재, 전용순, 조성자, 최화숙 등 15명이다. 이 날 임명식에는 여섯 분이 참석했다.

비전트립

2021년도 주님의교회 온라인 비전트립을 소개합니다

전통적인 비전트립
매년 여름 주님의교회는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지로 비전트립팀을 파송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과 마을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비전트립팀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미용사, 교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은 지역 사람들을 초청해서 머리 미용을 해드리고, 한국어를 알려드리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의 건강을 진료해드리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는 비전트립을 통해서 선교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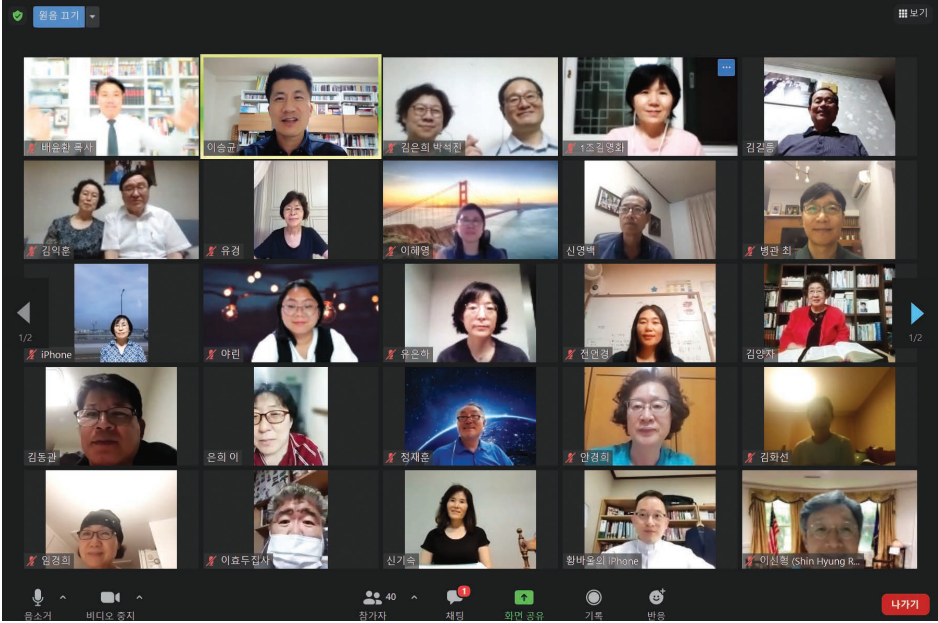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식, 온라인 비전트립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곳에도 비전트립팀이 갈 수 없었습니다. 202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란 방식으로 선교지에 계신 분들과 만나려 합니다.

주님의교회는 동시에 3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ZOOM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ZOOM에 접속하고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각각 ZOOM에 접속해서 화면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각 선교지에 시차를 고려해서 선교지의 시간에 맞춰 만남을 진행할 것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파송한 네 분의 선교사님이 있는 4개 지역(베트남,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필리핀)에 각 2개 교구씩 한 지역을 맡아 7월과 8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경수 목사 / 해외선교담당

국가	담당교구	일정	현지 선교사	활동 내역	참가자
베트남	1, 4교구	8/7-8	최화평 선교사	베트남 현지 사역 소개 및 기도회	각 팀당 약 60명 전체인원 243명
코스타리카	2, 5교구	8/6-7	금상호 선교사	코스타리카 사역 소개, 스페니쉬 사영리 읽기, 스페니쉬 찬양	
키르기스스탄	3, 6교구	7/23-24	윤바나바 선교사	키르기스스탄 현지 교회와 연합 예배, 현지 사역과 선교 이야기	
필리핀	7, 8교구	8/13-14	유성훈 선교사	필리핀 사역 소개, 어린이 온라인 성경학교	



광야의교회 소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형제교회인 광야의교회**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6월29일, 10년 동안 사역했던 거여에서 이곳 북위례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남시 학암동 647-6)

4년 전 광야의교회에 부임해보니, 교회 주위 반경 1km 안에 약 7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힘든 상황이라 이전을 생각하고 알아봤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년 전부터 다시 지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처소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자리를 추천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전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에 문을 두드렸지만 4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5번째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번 거절을 당했을 때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을 때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온 성도들이 경험하고, 더불어 우리의 신앙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5번째 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 자체가 기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이전의 과정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존재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가진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는, 교회가 자체 건물이나 소유를 가지지 않고, 대신 그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작지만, 지역교회로서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준비하면서, 교회 공간을 우리만을 위한 예배 공간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려면 믿지 않는 분들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수준 있는 공간 인테리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년 후 이사해야 할지 모르기에) 그래서 힘들지만 분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와는 다르게 교회가 부동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은 잊지 않고 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목적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최종목적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당감사에배를 드리던 날, 온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비록 공간은 좁아졌지만(54평) 이전 공간보다 환경적인 면에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예: 주차, 건물의 환경, 위치 등...)

하지만 외적인 환경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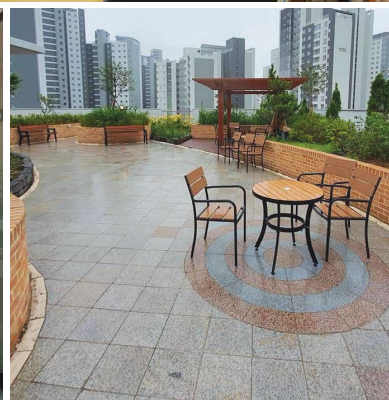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공간의 변화라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광야의교회를 통해 이곳 북위례의 6,100세대, 그리고 거여와 마천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만 세워놓으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독교 제국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나라를 위한 진지운동**을 쉬면 안 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나라는 온데간데없고, 교회만 남아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 광야의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의 이 결과는 저희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교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김화수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교회주의의 폐단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풍토 속에서, 형제교회로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으로도 두 교회가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임창진 목사



영화로 성경 읽기

참된 행복을 찾아서, <타샤 튜더>

내 인생은 아름다운가.

인생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이 질문에 대해 오직 노코멘트로 밀어붙이다보면, 어느덧 인생의 최후일각이 성큼 다가왔을 때 회한이 밀려오지는 않을까? 영화 <타샤 튜더(Tasha Tudor: A Still Water Story)> (마츠타니 미츠에 감독, 2017)에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동화 작가인 ‘타샤 튜더’가 실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타샤가 꿈꾸던 행복을 일생동안 어떻게 펼쳐나갔는지 감독이 10년간 취재하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영화이다.

할머니의 정원은 신선놀음이 아니었다

18홀의 골프장 하나가 생기려면 최소 30만평의 땅이 있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원래 타샤 할머니의 정원은, 30만 평의 버려진 농장 부지였다고 한다. 이 척박한 공간이 30여 년의 정성으로 가꾸어진다면, 어떠한 모습의 정원으로 완성될까. 만발한 하얀 데이지 꽃들이 수놓은 별밤을 상공이 아닌 초원에서 볼 수 있다! 나는 타샤 할머니로부터 잊지 못할 선물을 이 별밤에서 받았다. 화분 하나도 제대로 못 기르는 내가 보기에 그녀는 능력자였다. 곧 60살이 되는 연세에 조경을 시작할 수 있는 그녀의 체력, 일생을 바쳐 열중하는 그녀의 정신력, 모두 부러웠다. 그런데, 할머니의 드넓은 정원을 다 구경할 때까지, 내 마음속에 걸리지 않았던 한 가지 의혹이 있었다. 재력도, 권세도 아닌 꽃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할머니의 ‘행복’은 활자에 갇혀 있지 않다

“정원 가꾸기는 제 인생 자체예요. 저를 즐겁게 해줘요. 즐기지 않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정원 가꾸기가 가장 즐거워요. 그게 다예요.” 데이지의 별밤 정원을 소개하기 직전에 타샤 할머니께서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무장 해제시켰던 말씀이다. 실제로 맛보고 느껴야 할 행복과 기쁨을 나는 이때까지 책으로만 배우고 있었다.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지나면... 셀 수 없을 만큼 되뇌이며, 사소한 감정 표현조차 훗날로 미루었다. 타샤 할머니는 이런 나에게 그녀만의 화법으로 알려주셨다. 밤하늘의 별처럼 흐드러진 데이지 꽃의 아름다운 향연을 꼭 봐야 한다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만족감의 유무’에 달려있을 뿐. 할머니의 포인트였다. 목표를 달성해도 나의 정서적 허기가 번번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타샤 할머니의 ‘감사’가 내 삶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정상에 오른다고 다스려질 기갈(飢渴)이 아니었다. 타샤 할머니처럼 ‘감사’했다면, ‘고달픈 탐욕’이 내 마음에 끼어들 틈은 없었을 것이다.

타샤 할머니의 판타지를 넘어 ① 상상해온 삶이 아닐지라도

‘행복’은 명품 샵 쇼케이스에 진열된 사치품이 아니라는 타샤 할머니의 삶과 철학에 천만 번 공감해도, 현대를 사는 내 영혼의 안식이 정말로 타샤의 정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의 기준이 장소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방향 감각이 삶의 행로를 좌우한다. 타샤 할머니는 우리에게 삶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데이지 꽃을 바라보라고 일러준다. 그렇다면, 나는 긴급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디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장해주는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상상해온 삶이 아닐지라도, 내 일상의 터전, 실천적 본보기, 내 행복의 원천은 여전히 예수님인가? 평화와 기쁨으로 나는 늘 충전 되어 있는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저 이것 저것 달라고만 요청하는 나만의 기도에 죽자 살자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사교계의 명문가 외동딸이었던 타샤 튜더는 전원에 묻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동화 작가로 살게 되었다. 세월이 비껴간 듯, 긴 치마 차림에 비교

적 건강한 모습으로 우아한 티타임을 즐기는 타샤 할머니이지만, 씬 없는 노동으로 화석처럼 굳어진 그녀의 두 손을 보았는가?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냐는 아들의 질문에, 90세 타샤 할머니의 대답은 나지막하지만 분명하다. 그녀가 추구해온 30년 어치 근면과 인내가 고스란히 축적된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살다보면,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그대로 일 때가 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일상도 언젠가는 기적을 울리며 타샤 할머니처럼 종착역으로 향할 텐데, 그때, 나도 나의 예수님을 떠올리며 소중한 사람들과 의연하게 평안과 안식을 나누고 싶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타샤 할머니의 판타지를 넘어 ②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타샤 할머니의 삶에서 느껴지는 큰 스케일의 감동은 끝없이 아기자기한 그림과 고운 자태의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긴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타샤 할머니의 노고와 집중력이 우리에게 묵직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부귀와 영화의 쟁탈전, 생존 경쟁의 갈등과 싸움 대신, 타샤 할머니는 맨발로 정원을 거닐며 자연과 혼연일체 되는 삶을 선택했다. 이런 그녀에게 우울할 틈이 있었을까? 이런 그녀를 만났기에, 버려진 황무지가 어느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꽃이 제대로 필 때까지, 꽃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살피고 공부하며, 잘 자랄 만한 장소에 부지런히 옮겨다 심으며 일생을 기다리다보니, 이제는 꽃의 얼굴만 보아도 꽃이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타샤는 두 눈을 빛내며 장담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열정과 신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 속 정원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진지하게 기도로 여쭙어본 적이 있는가. 타샤 할머니처럼 세심하게 궁리한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매 순간 사랑하며,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떠나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다 갈 ‘예수님의 사람’인가. 타샤 할머니는 동식물과 친구처럼 지내며 뚜렷한 주관으로 행복의 정원을 일구었다. 크리스천인 나는 무엇으로 축복의 정원을 가꾸어야 할까. 나의 반복되는 일상이, 한 폭의 수채화나 동화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 충만함, 유쾌함으로 승화되었으면 한다. 나의 각박한 목표 의식을 차분히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기쁨도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는 꿈이 이렇게 매 순간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중이리라 믿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3>**

타샤 할머니가 영면에 접어들던 날, 할머니가 거둔 유종의 미를 축하하듯, 정원에는 꽃이 한층 더 만발했다고 한다. 나는 아름답게 살아오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는가. 각자의 인생 시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다만, 인생의 끝까지 갔을 때, 허무함에 사무쳐 헤매지 않았으면 한다. 타샤 할머니처럼 미소를 지으며 천국에 이를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이다. 함줄함울

간증

네팔, 나눔의 선순환 현장



네팔누이콧지구 케알팔 고산마을 아이들과함께 _ 2016년 7월

네팔과의 인연은 아들과 함께한 봉사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불과 4개월 전 히말라야 트레킹에서 만났던 ‘랑탕 마을’의 아이들이 눈사태에 목숨을 잃게 되었음을 알게 된 중2 아들이 카메라 속에 담긴 히말라야 산골 마을의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추모하고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촬영한 사진으로 제작한 카드를 ‘주님의교회 영어배부’친교시간에 소개하면서 네팔 대지진 기금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모은 기금을 직접 전달하기를 원했던 아들과 함께 저 또한 난생 처음 네팔을 찾게 되었고 그 이후 매년 여름 헤퍼 인터내셔널 네팔 지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네팔 산골 마을에서 후원과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헤퍼 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과 ‘한 잔의 우유가 아닌, 소 한 마리’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194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125여개국의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립자인 농민 출신의 댄 웨스트는 스페인 내전 당시 난민들에게 분유를 배급하는 구호 요원으로 봉사하던 중, 순간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 암송아지를 뜻하는 헤퍼(Heifer)라는 이름으로 비영리기관을 설립하여 가축을 통한 구호구제활동을 그가 속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1944년 7월 13일, 푸에르토리코의 빈곤한 가정에서 우유공급을 위해 암송아지 ‘민음’이를 포함한 18마리를 보낸 것이 헤퍼의 첫 가축 원조입니다.

헤퍼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돕기 위해 헤퍼의 이름없는 후원자들은 52년부터 76년까지 총 44회에

걸쳐 수천 마리의 가축을 배에 실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젃소, 황소, 돼지, 양, 염소, 토끼, 종자란 등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온 ‘노아의 방주’는 폐허가 된 이 땅에 새 생명과 ‘희망의 홀씨’를 뿌렸습니다. 가축들은 빈곤 농가와 전쟁 고아가 있는 고아원(부산 애아원, 이사벨 고아원, 마산 애리원 등), 한센인 정착 마을, 낙농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연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고마운 나눔의 기억을 간직한 한국 농민들은 헤퍼의 ‘패싱 온 더 기프트(Passing on the Gift),’ 나눔 이어 가기 정신을 현재 축산농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암송아지 나눔 릴레이’캠페인으로 이어왔습니다.

2019년 여름, 네팔 다딩 지역의 한 고산마을에서 열린 ‘패싱 온 더 기프트’세레머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헤퍼로부터 기증받은 염소의 첫 번째 암컷 새끼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시 기부하는 나눔 전달 현장이었습니다. 어린 암컷 염소를 전달하는 이웃마을 사람들을, 기부 받은 고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축제 속 주인공처럼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연간 소득 300달러 미만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염소 선물은 만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싱온더기프트 세레머니_네팔 다딩_나눔정신을 이어가다



네팔누이콧지구 케알팔 고산마을 여성그룹_2016년 7월

나눔의 행복과 즐거움에 저희도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품은 조그마한 소망을 통해 네팔을 찾게 되었고 주님의교회 영어배부 가족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나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만난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다시 오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네팔에서 헤퍼를 통해 만들어진 작은 변화가 한 여성, 그리고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헤퍼의 도움으로 자립의 삶을 살게 된 네팔 여성들의 소망은 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같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현장을 찾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빈곤한 네팔 농가의 생계소득 지원을 위해 한국의 우량 젃소 지원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사역을 통해, 나눔 실천을 통해,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집사



왼쪽) 네팔타나훈지구 Muskan여성그룹

오른쪽) Hatching Eggs for Korea Project (산란계용 종란 보내기 프로젝트)_1952년 4월

사역 간증

정신여중 사랑어머니 수업을 마치고

주님의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주일날만 섬기고 직분과 사역의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니 교회사역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쉽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던 차에 딸 아이가 정신여중을 졸업하고 정신여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신학원 사역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담당부장 권사님께 전화를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정신여고 기도어머니 사역을 통해서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제 아이에 대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반성이 되고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더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제가 맡은 아이들이 나의 딸과 같이 느껴지고 사랑으로 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마지막 수업 때는 아이들에게 감동 어린 손편지를 받아 뿌듯함과 고마움으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2020년에 부장권사님의 권유로 총무직을 맡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목사님과 권사님, 임원집사님들과 매일 온라인으로 큐티를 나누며 정신학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속히 사역이 시작되어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듯 올해 2021년 3월 먼저 정신여중 나눔과 섬김 수련회에 인성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수업에 들어갈 인원 확보와 준비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매일 기도하며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중학교 2,3학년 아이들을 한 반씩 조를 나누어서 1시간씩 수업을 하며 만났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었지만 1학기 종강을 하는 날에는 하길 참 잘했다 생각되고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초롱초롱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즐거워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고 아이들로 인하여 제가 더 은혜받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업 마지막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임재 하셔서 아이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이들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로 맺히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함께 만나주시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 매 순간 은혜롭게 마쳐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랑비처럼 뿌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우리아이들의 심령이 촉촉해지고 위로받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의교회 안에, 좋은 밭에 뿌려졌기에 정신학원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단을 거둔다는 말씀대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복음의 열매 맺는 사역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경순 목사님과 섬김으로 애쓰시는 100여 명의 정신학원 사역부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 드리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기도합니다.

고영선 집사

성도 문예 | 조세종 집사

달

들켰다
밤에만 나왔는데
숨소리도 안냈는데
걷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한여름밤 흐르는
한강의 향연(饗宴)

들풀

다친 두 손
쭉 뻗어
초록물에 담가본다
쓰러져도
움직이지 말고
베어져도
소리내지 않으리라
가슴속 남겨진
붉은열매
감싸본다
아무도 모른다
도로위 하루
늘 그랬듯이..

겨울나무

짧은 시가 쓰고싶어
이리저리 뒤척인다
지워내고
벗어보고
떨어내고
결국
'나(我)'만 남는다



성도 문예 | 최정숙 권사

사라의 모정

무뚝뚝한 남편 아브라함이
금지옥엽 내 아들에게 장작을
등에 지게 한다 아뽕싸!

심상찮은 얼굴로 길 떠나는 두 부자를
남장하고 멀찍이 뒤따라간다 모정이
90에 낳은 내 아들과 100살이 넘은 남편을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걸려 넘어진 사흘 길
들킬세라 놓칠세라 숨죽이며 따라온 사흘 길
왜와 어디를 뇌리에 반복하며 숨어온 사흘 길

모리아산에 제단을 설치하는 무심한 남편
순순히 손과 발 묶이며 제단에 올려지는 내 아들
안돼요 소리치고 싶으나 나무 뒤에 숨은 모정

주우~님! 차리리 이 에미를 제물 삼아 주옵소서!
피를 토하는 모정의 절규를 들어주신 하나님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 준비하셨네

칼을 쥐고 높이 들어올린 아브라함의 손
힘차게 숫양의 각을 떼서 제단에 올리네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며 펄쩍 주저앉은 모정

알록달록 채색옷

형들 몰래 엄마가 기워준 색동옷
희미한 불빛 아래 한 땀 한 땀 기운 색동옷

예쁜 색동옷 입고 시샘 많은 형들에게
간식 배달 간다 양치는 형들에게

저 멀리서 뛰어오는 알미운 동생
알록달록 반짝이는 알미운 색동옷

굴에 넣을까 팔아버릴까
사랑 없이 음모하는 형제들

아랍 상인에게 팔려 찢겨진 색동옷
애굽 재상집에 수출된 초라한 색동옷

마나님의 유혹 뿌리친 빛 바랜 색동옷
그만 감옥에 묻히게 되었네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무색의 색동옷
드디어 찢어지고 빛 바랜 무색의 색동옷이
위엄있고 단아한 재상 옷으로 바뀌었네



여호와의 첫사랑

당신의 형상대로 흙을 곱게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첫 입맞춤은
에덴동산에서 영원히 살자는 언약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달콤하고 화사한 꽃뱀의 유혹에
그만 첫사랑의 언약을 잊었다네

땅을 갈고 아이 낳는 수고 속에
복락원의 꿈은 아련히 사라지고
기다리는 것은 한숨과 고통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공홀로 가슴앓이하던 여호와의 첫사랑은
핏빛보다 더 붉은 예수의 보혈을 준비하였다네

여호와의 짝사랑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신부야
에덴동산의 첫사랑을 잊었느냐
곱게 빚어 생기 불어넣고
영원히 함께 살자는 나의 사랑을

비손강가를 거닐며 나눈 나와의 정담이
너의 애마 샤넬과 구찌보다 못하더냐
과실나무 사이를 뛰딩굴며 깔깔대던
철없이 순수하던 우리의 사랑을
신부야 잊었느냐

날마다 너가 아가는 시선들을
뒤에서 몰래 아가는 나의 눈길을
신부야 모르느냐
정녕 못 느끼겠느냐

오늘도 세상으로 뛴쳐나가는 너의 발길을
선글라스와 모자 쓰고 뒤쫓아가는 나를
신부야 못 보느냐
알고도 모른 체 하느냐

오늘 밤도 서러워서
차가워지는 가슴을 쓸어안고
너를 기다린다
나의 어여쁜 신부야
어서 돌아오오

끝까지 참으려다 이 외로움을
끝까지 기다리려다 나의 신부를
호세아가 바람난 고멜을 기다리는 것처럼

목회칼럼

‘단 한 사람’ - 한 사람을 향한 비효율적 삶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큰 걸음을 내딛기 전에,

크고 위대한 어떤 사역을 행하기 이전에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봅시다. ‘나’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연농원’이란 이름으로 1976년에 개장되어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연인들의 선망의 장소가 된 에버랜드!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스릴을 만끽하게 해주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기 만점 판다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게다가 계절마다 화려하게 피는 꽃들이 반겨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국민 눈치 게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원이 적은 날 방문하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곳이 바로 에버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버랜드에도 단 2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977년 1월 11일, 영하 14도의 한파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공원 측에서는 오늘은 그 어떤 누구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개장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기차와 버스를 수 차례 갈아탄 끝에 당시 가장 볼거리가 많다는 에버랜드(당시 자연농원)에 도착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 노부부를 위해 정문을 열고 평소처럼 안내하며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날 이 노부부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손님도 입장하지 않아 이 노부부는 유일한 손님이 되어 공원을 누볐고, 이날은 에버랜드 역사상 가장 적은 손님이 입장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마인드를 떠올려 보면, 이날은 분명 손해 보는 장사를 한 날입니다. 단 두 명의 손님들을 위해 봉사한 직원들과 가동된 시설물을 생각해 보면 이토록 비효율적이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날의 영업을 통해 이 노부부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세상 어디서도 얻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처럼 단 한 사람, 작은 한 명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비효율성을 가져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또 살아내셨던 삶의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크고 위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그렇게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마25:40)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하기”(골3:23)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쓰러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를 극진히 돌본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좋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우선되고 더 위대한 일이 있었기에 ‘고작’ 한 사람을 돌보느라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제사를 집전하거나 돕는 일은 오직 나만 할 수 있기에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비효율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어떤 영혼이나 사역에 경중을 따지지 않으셨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더욱 위대한 큰 사역을 논하시며 어린 아이나 이방인, 죄인들 한

명, 한 명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배은망덕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죄악을 일삼는 인간들을 위해 그 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이토록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 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삶은 주목받지 못하는 고독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비효율적이고 고독한 삶이기에 늘 평가절하되며,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향한 효율적인 사역과 삶을 우선하며 선호합니다.

그러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겠노라는 우리의 결단은 바로 지금 내가 마주하는 ‘단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내가 사랑을 쏟아야 할 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마주하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이 소중한, 일상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무용담이 있습니다. 저의 크리스마스 무용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모든 성탄 행사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과 화려한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교회 문을 나서려던 그때, 한 명의 부서 아이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왜 다시 교회로 왔냐는 물음에 ‘심심해서’라며 초딩다운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놀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떠나야 했지만, 심심하다는 아이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미루고 아이와 함께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집에 가야겠다며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계획했던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심심하다던 한 아이에게 집중했던 그날처럼, 그의 필요를 가지고 내 앞에 선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큰 걸음을 내딛기 전에, 크고 위대한 어떤 사역을 행하기 이전에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봅시다. ‘나’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배윤환 목사



코로나 관련 담임목사 네 번째 목회서신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이 4단계로 조정됨으로 우리 교회는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접종이 원활해지고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어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조만간 끝이 나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델타변이로 인해 수도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상황으로 치달고 있어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면 성도님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성전에서 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몇 차례 비대면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일상속에서 지금껏 누려온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비대면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다른 교회보다 더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고, 교회 학교는 지난 1년 6개월가량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염려해서 반별로, 또 연령별로 등등으로라도 현장예배를 드리자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지만 꼭 참고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이요, 교회가 사회를 계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언제 다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잘 견뎌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지 않아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가족여러분

몇 주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실속에서 예배드림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주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10일 김화수목사 드림

알립니다

1. 2021년도 유유청청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유아숲 : 7/10(토)~25(주일)
유소년숲 : 7/24(토)~25(주일)
청소년숲 : 7/25(주일)~8/1(주일)
청년숲 : 8/6(금)~8(주일)
EM(아동부) : 8/7(토), 8/14(토)

2. 2021년도 온라인 비전트립 일정

베트남(1,4교구) : 8/7(토) ~8(주일)
코스타리카(2,5교구) : 8/6(금) ~7(토)
키르기스스탄(3,6교구) : 7/23(금) ~24(토)
필리핀(7,8교구) : 8/13(금) ~14(토)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